

출 장 보 고 서

I. 출장 개요

1. 출장목적

- 현행 우리나라 직접지불제의 ‘공익형’ 직불제와 ‘소득안정형’ 직불제로의 개편과 관련하여
- 일본의 공익형 직불제로서 ‘자원·환경직불제’와 ‘중산간직불제’의 현장 실시사례를 조사하여 연구과제 수행에 참고로 하며
- 제15회 일본 다랭이논대회에 참가하여, 조건불리지역에서 자원보전과 농업진흥 사례 등 지역주민의 활동과 지원정책 등에 관하여 조사

2. 출장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김 태 곤

3. 출장지역 및 출장기간

- 일본 니이가타현(新潟縣) 조에츠시(上越市), 도오카마치시(十日町市) 등
- 10월 15일(목)~18일(일) 3박 4일

4. 주요 조사내용

- ☐ 중산간지역 농업활성화 사례조사
 - 중산간지역에서의 농업구조개혁 가능성에 관한 의견교환
 - 중산간지역에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주요활동, 지원체제 등
- ☐ 공익형 직불제의 우수사례와 실시효과
 - 자원·환경 직불제의 우수 실시사례
 - 중산간 직불제의 우수 실시사례
 - 직불제에 의한 지역농업 진흥효과 및 지역자원 보전효과
 - 공익형 직불제에 관한 다양한 실시사례 수집 등

5. 방문기관 및 면담자

野口 和広	조에츠시(上越市) 농림수산부장
笹川 筆	조에츠시(上越市) 농림수산부 농업진흥과장
岡武 夫	조에츠시(上越市) 야스즈카종합사무소 소장
吉原 佳正	조에츠시(上越市) 야스즈카종합사무소 주임
丸山 新	조에츠시(上越市) 야스즈카지구 호소노(細野) 마을 이장
関口 芳史	도오가마치시(十日町市) 시장
富澤 恵子	도오가마치시(十日町市) 시립 요시다초등학교 교장
酒井 富夫	토야마대학(富山大學) 교수
奥村 愼太郎	나가사키현(長崎縣) 운젠시(雲仙市) 시장
松尾 忠二	나가사키현(長崎縣) 가와타나정
相田 明	기후현(岐阜縣) 현립 국제원예아카데미 준교수
中島 峰広	일본다랭이논학회 회장
安井 一臣	일본다랭이논학회 이사
廣瀬 俊介	NPO법인 학생인재뱅크 인턴
高橋 久代	극단 후루사토캐러반
石井 里津子	작가

6. 일정표

일 정	방문기관	업무내용
10.15(목)	출국 (인천~니이가타시(新潟市))	KE 0763(18 : 00~19 : 55)
10.16(금)	조에츠시(上越市) 야스즈카(安塚) 지구 방문 도오카마치시(十日町市) 방문 현장견학	○ 공익형 직불제의 실시효과 ○ 우수사례 등에 관한 실무자 히어링 ○ 제15회 전국다랭이논대회 참가 ○ 중산간지역 농촌활성화 사례견학
10.17(토)	도오카마치시(十日町市) 방문 이동(十日町市~新潟市)	○ 자원·환경직불제 실시사례
10.18(일)	귀국 (니이가타시~인천)	KE 0764(09 : 30~11 : 45)

II. 출장 결과

1. 일본의 공익형 직불제

- 일본의 직불제 중에서 자원보전이나 환경보전 등과 연계한 직불제로는 2000년부터 실시하는 조건불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산간지역 직불제’와 2007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지·물·환경보전 직불제’ 등이 있다. 이 두 가지 직불제가 소위 ‘공익형’ 직불제이다.

□ 중산간지역 직불제

(1) 도입 목적

- 유희농지가 발생하여 다원적 기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중산간지역에 생산활동 등에 지원하여 농업경영의 유지와 다원적 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
- 현재 중산간직불제는 5년간의 평가에 근거하여 약간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2005년부터 2009년간 5년간 연장, 실시되고 있다.

(2) 제도 개요

- 경사도와 농지형상 등 대상농지가 있는 지역의 마을을 단위로 이행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 지불단가에 따라 지불된다. 대상 행위는 경작포기 방지를 위한 ‘농업생산활동’과 다원적 기능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다원적 기능 증진활동’ 등을 중시하고 있다.

표 1 지원대상 활동

분류		구체적인 추진행위(예)
농업생산 활동 등 (필수사항)	○경작포기 방지활동	○적절한 농업생산활동을 통한 경작포기방지 ○경작포기지의 복구 및 축산적 이용 ○고령농가·이농자 농지의 임차권설정 ○법면 보호·개보수 ○조수피해 방지 ○임지화 등
	○수로·농도 관리활동	○시설의 적절한 관리·보수 (수로정비, 풀베기 등)
다원적 기능 증진활동 (선택사항)	○국토보전기능 제고활동	○토양유실을 배려한 영농실시 ○농지와 일체화한 주변임지 관리 등
	○보건휴양기능 제고활동	○경관작물 식부 ○시민농원·체험농원 설치 ○다락논 오너제도 ○그린투어리즘 등
	○자연생태계 보전활동	○어류·곤충류 보호 ○조류 모이장 확보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활동 등

(3) 단가

- 지불단가는 지원을 받지 않는 평지지역과의 균형을 도모하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관점에서 평지지역과 대상농지와의 생산조건 격차(비용차)의 8할로 하고 있다.
- 논·밭·초지·채초방목지별로 단가를 설정하고, 원칙적으로 급경사농지와 그 이외 농지에서 생산조건 격차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1호당 100만엔의 수급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

□ 농지·물·환경보전 직불제

(1) 도입 목적

-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농가단위 직불제를 산업정책이라고 한다면 ‘농지·물·환경보전 직불제’는 농촌정책(지역정책)으로 분류되며, 2007년부터 실시한다.
- ‘농지·물·환경보전 직불제’는 농지·농업용수 등 농업자원과 농업생산 환경을 보전하거나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며, 추진방식에서 ‘자원보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정책영역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2) 제도 개요

- 이 제도는 지역에서 농업자원과 생산환경 등의 양호한 보전과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활동에 대하여 지원한다.

- ① 농지·농업용수 등 자원보전을 위한 지역단위의 ‘공동활동’
- ② 농가단위의 환경보전을 위한 선진적인 ‘영농활동’
- ③ 이러한 활동의 질적인 측면을 더욱 높인 ‘추가활동’ 등

○ 농업·농촌자원 보전과 환경친화적 농업생산 추진이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양 영역 모두 지역단위로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여기서 ‘보전’이란 ① 현상 유지, 또는 ② 부하 경감이라는 의미이며, 그리고 ‘향상’이란 ① 환경 창조, 또는 ② 생물체 보전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다.

(3) 공동활동 지원

- 식량의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는 기반이면서 사회간접 자본인 농지·농업용수 등의 자원을 장기적으로 적절히 보전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동활동을 하는 경우에 일정한 지원을 한다. 이러한 공동활동을 행하는 지역단위의 ‘활동조직’이 지원대상이 된다.
- 먼저 마을이나 수계, 경지정리지구 등 일정한 규모의 지역에서 농가 뿐 아니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가하는 활동조직을 설치하고, 활동조직의 구성원이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시정촌과 협정을 체결하여, 일정한 효과가 있는 보전 및 향상 활동을 실천하는 경우에 지원을 실시한다.

표 2 지원대상 활동

지원구분	주요 내용	지원대상
공동활동	○농지·농업용수 등 자원의 보전·향상을 위해 지역단위로 실시하는 공동활동 (추진단계) ①마을·수계 등 일정 지역에서 농가·주민 등이 참가하는 영농조직 설치 ②조직의 구성원이 ‘활동계획’을 작성, 시정촌과 협정 체결 ③일정 수준의 보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기초지원 실시 ④지원수준은 농지면적 기준으로 산정	활동조직
영농활동	○환경보전을 위해 농가단위로 실시하는 선진적인 영농활동 ○공동활동 대상지역	활동조직 또는 농가
추가활동	○공동활동과 영농활동을 촉진·보강하는 활동	활동조직 또는 농가

(4) 영농활동 지원

- 영농활동에 대한 지원은 농업생산활동에 따른 환경에 대한 부하를 대폭 경

감하기 위하여 선진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지역은 ‘공동활동’을 실시하는 지역에서 계획적으로 환경보전을 실시하는 지역이 대상이 된다.

- 지원대상이 되는 활동은 활동조직의 구성원인 농가가 협정에 근거하여 농업 본래의 자연순환기능의 회복을 통하여 환경부하를 대폭 줄이고, 지역 농업 진흥에도 기여하는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 예를 들면, ① 환경부하를 경감하기 위한 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②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지속성이 높은 농업생산 방식¹⁾의 도입으로 ‘화학비료·농약의 대폭적인 사용 절감 등 선진적인 활동’을 실천하는 경우에 일정한 지원(선진적 영농지원)을 실시한다.

(5) 추가활동 지원

- 추가활동 지원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활동을 더욱 촉진·보강하여 이러한 활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협정에 근거, 지역에서 보다 고도의 활동을 실천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 구체적으로는,
 - ① 휴경지 복구, 중요 동식물 보전·재생, 하류지역의 지하수 함양, 활동조직의 NPO 법인화 등 활동지역의 확산과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단위’로 ‘촉진비’를 활동조직에 지원한다.
 - ② 특히 ‘선진적인 활동을 실천하는 지역을 평가하여 전시효과를 창출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2. 조에츠시(上越市)의 마을간 연대에 의한 지역농업 활성화 사례

□ 배경

- ‘중산간지역 직불제’는 마을단위의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5년간이라는 기간을 한정하여 영농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유허농지 발생을 방지하고 영농활동을 계속하게 하여 농지를 보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 최근 마을에 따라서는 고령화나 과소화 등으로 영농활동의 수행이 곤란한 지역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산간 직불제를 활

1) ‘지속성이 높은 농업생산 방식의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지속농업법)에 근거, 토양개량, 화학비료·농약 절감기술을 조합해서 실시하는 생산방식을 말한다.

용하여 마을간 연대를 통한 활동이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는 선행하여 경험한 조에츠시는 전국 또는 다른 지역에 앞서 이미 3년 전부터 마을간 연대를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의 개요를 정리한다.

□ 중산간지역내 마을간 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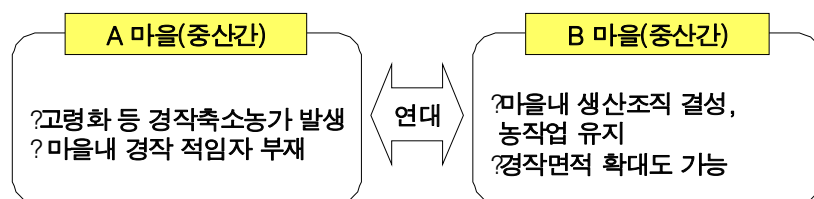
- A 마을은 지역 내에서 고령화 현상이 현저하고 모내기나 벼 수확 등 농작업을 개인으로 해결할 수 없는 농가가 있지만 현재의 주민만으로는 경작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상정한다.
- B 마을은 ‘마을영농’을 조직하여 농작업에 대해서는 비교적 여유를 가지고 있고, 경작면적을 확대할 여지도 있다.
- 이러한 경우 양 마을간 농작업이나 공동작업의 실시시기를 조정하여 협력체제를 만들 수 있을지를 검토한다. 마을 단독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수의 마을이 체제를 정비하여 대응할 수 있다.

□ 평야지역 조직과 협력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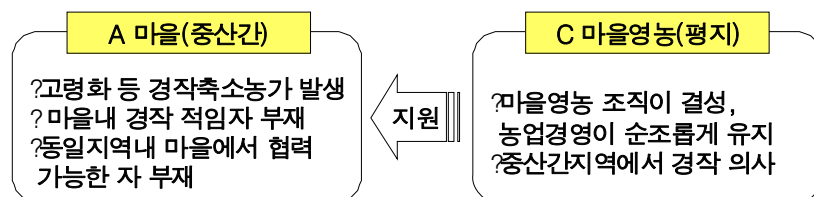
- A 마을에 대해 지역 내에서 연대마을이 없는 경우는 평지의 비교적 노동력의 여유가 있는 마을영농 조직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그림 1 마을간 연대의 개념도

■ 중산간지역내 마을간 연대



■ 평지 마을영농 조직과 협력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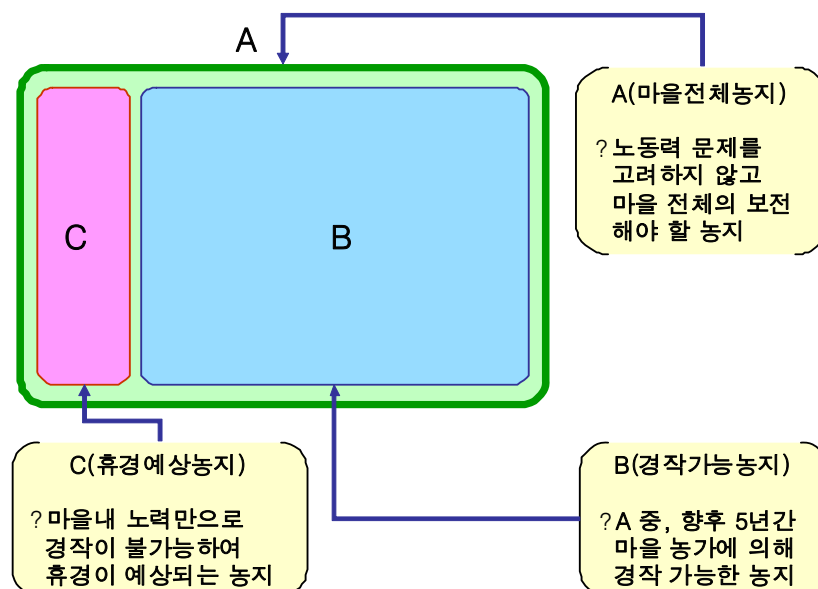


- 예를 들면, C 마을영농 조직은 영농조합법인으로서 경영이 안정되어 있고 노동력도 여유가 있어 중산간지역에서 경작을 할 의사가 있다고 상정한다.
- A 마을과 C 마을영농 조직 간에 공동작업이나 농작업의 실시시기를 조정하여 지원체제를 만들 수 있다.

□ 농지보전 활동

- 마을간 연대를 통한 농업생산활동은 농지 유희화를 방지하여 농지를 장기적으로 보전하면서 마을 내에서 고용과 소득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 과정에서 ‘중산간 직불제’나 ‘농지·물·환경보전 직불제’를 활용하면서, 또는 양 직불제의 정책효과를 높여나가는 것이다.
- 휴경이 발생하여 향후 농지보전에 문제가 예상되는 마을은 마을단위에서 주민합의에 의해 다음 그림과 같은 ‘토지이용계획도’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 A 지구 : 마을의 노동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보전해야 할 농지
 - B 지구 : 마을 내 농가들의 노동력 만으로 향후 5년 정도까지 경작이 가능한 농지
 - C 지구 : 향후 5년 이내에 휴경이 예상되는 농지 등으로 구분
- C 지구에 대해서는 지번·경작자별 별표를 작성하여 마을 내외에서 협력·지원으로 경작이 가능한 방법을 검토한다.
 - 마을에서 공동작업으로 경작할 것인가
 - 경작이 가능한 다른 마을에 위탁하여 경작할 것인가를 결정

그림 2 마을단위 토지이용계획도의 개념



3. 조에츠시 야스즈카지구 및 호소노(細野) 마을 활성화사례²⁾

□ 야스즈카지구 활성화사례

- 구 야스즈카정(安塚町)을 포함하여 14개 시정촌이 2005년 1월 1일부로 합병하여 인구 21만명의 조에츠시(上越市)가 탄생하였다. 지형적으로는 해안부에서 평야부, 산간부까지 이르고 있다.
- 합병이후, 구 야스즈카정은 조에츠시 야스즈카지구로 개편되었다. 인구 3,200명, 고령화율(전체 인구대비 65세이상 인구비율) 38%로 조에츠시에서 가장 인구감소율, 고령화율이 가장 높다.
- 고령화율이 높지만 병원에 입원하거나 환자생활을 노인은 적은 편이며 대체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 기상조건은 눈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눈이 많을 때는 3m이상 내릴 때도 있었지만 최근 온난화 영향으로 1m 전후다. 지난해는 50~60cm였다. 눈은 생활에 큰 불편이었다. 지붕이나 도로의 눈치우기는 중노동이었다.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자, 눈을 재산으로 활용하자, 즉 눈을 자원으로 간주하는 캐치프레이즈로 지자체와 마을 주민이 일체가 되어 ‘눈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에 도전하였다.
- 지금부터 22년전인 1987년, 현재 도쿄돔 구장 자리에 있던 고라쿠엔(後樂園) 야구장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행사로서 ‘고라쿠엔 야구장 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 10톤 트럭 450대분의 눈을 도쿄로 운반, 야구장에 스키, 썰매, 눈집만들기 등 눈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를 개최하는 등 야스즈카정과 도쿄와의 교류를 시작하였다. 이 이야기는 전국으로 알려졌다.
- 이 이벤트는 대성공으로 끝나고, 지역주민들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눈에 대한 즐거움, 좋은 점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전국을 눈을 판매하고, 스키장 개설, 온천과 교류인구 증가에 힘을 쏟아서 눈을 처음으로 판매한 지역으로 소개되는 등 일약 유명세를 탔다.
- 더욱이 눈을 냉방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교, 병원, 연수시설, 지역특산물 전시장, 농산물 저장창고 등 야스즈카에 14개의 냉방시설을 만들었다.

2) 이것은 마루야마 아라타(丸山 新) 조에츠시 야스즈카지구 호소노(細野) 마을 이장과의 대담내용을 정리한 것임.

눈 속에 저장한 쌀, 술, 메밀 등은 특히 맛이 뛰어나다. 눈은 지구에 친화적인 환경자원이기도 하다. 특히 2월 하순경, 5만개의 ‘눈속 촛불길’은 환상적이고 신비적이다.

- 새로운 주민조직인 ‘NPO 눈의 고장 야스츠키’가 합병이후 전반적인 지역 활성화를 담당하고 있다.

□ 호소노(細野)마을 활성화 사례

- 호소노 마을은 24호, 60명, 고령화율 50% 정도의 작은 마을이다. 야스츠키 중심부에서 5km 떨어진 곳이다. 40여년 전까지, 눈 때문에 교통불편이 많았지만 지금은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
- 산업활동은 ‘농업+타산업종사자’가 대부분이며, 최근 정년퇴직자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농업취업자도 증가한다. 눈은 천수답이어서 물 확보가 문제였지만 지금은 저수지, 펌프, 호스 보급 등으로 문제가 적어졌고 농작업이 편리해졌다.
- 지금부터 30년전, 인구감소에 위기감을 느낀 마을 청년들이 선진지역 견학이나 연수를 시작하여 마을의 합의를 모았다. 마을 활성화는 교류인구 확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1989년 ‘자연왕국 호소노마을’을 조직하여 ‘마을 봄축제’를 기획하였다.
 - 이 조직이 도농교류의 하나인 마을 봄축제를 실시
 - 마을 부녀회 멤버 5명이 그룹을 결성, 직거래·농산물 가공, 택배, 직거래 거래처 주민과의 교류 등을 실시
- 이 이벤트는 5월 연휴중 하루 ‘산채채집’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당일 마을 주민의 안내로 자연 산책을 하면서 산채를 수확한 후 산 정상에서 산상축제와 점심식사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 마을 부녀회가 만든 산채 도시락, 버섯국, 술 등으로 교류를 즐긴다. 이것이 반복됨에 따라 돈으로 구입할 수 없는 신뢰관계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자신을 가진 부녀회 6명이 1994년 ‘어머니 집’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과자가공공장을 설립, 연중 가동하고 있다.
- 노인회는 목공기술을 살려서 목공품을 만들고 있다. 연령은 80세 가량이다. 이러한 것이 중복되어 최근 마을에 숙박하는 교류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숙박시설 건설을 지자체에 요망해 두었다.
- 교류나 체험이 패도를 타고, 또 농림수산성 주최 풍요로운 마을만들기 대상

을 수상한 것도 작용하여 공설민영 숙박시설 ‘六夜山莊’을 마을의 책임으로 1998년부터 영업하고 있다.

- 이 외에도 고시히카리 오너제도, 농촌체험 등으로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생을 받아들여 모내기과 벼베기 등 각종 체험과 민박 등이 성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류인구가 확대함에 따라 상품, 사람, 정보, 경제의 흐름에 변화가 나타났다. 흐름이 바뀔에 따라 고용의 장이 생겨나고 생산이 확대되어 소득이 늘어난다. 그리고 지역공동체도 활성화한다.
- 생산된 농산물(산채, 쌀, 채소, 가공품 등)은 당해 지역에서 가공 · 요리되어 선물로서 소비되고, 또 체험 등이 추가되면 부가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여기서 생긴 수익은 마을에 환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정부 지원은 받지 않는다. 주민 각자가 위험을 부담하면서 자신을 가지고 경영에 참가한다.
- 이러한 운영을 임의조합이 담당해 왔지만, 2004년 ‘NPO법인 자연왕국 호소노마을’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4년 마을회관, 토지, 쓰레기 처리장은 원래 지자체 재산이었던 것을 지역단체의 인가를 얻어 법인격의 호소노 마을 재산으로 소유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다.
- “시대는 점점 진화하고 있다. 흐름에 타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멈추지 말고 1보라도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자 한다.”(丸山 이장)

□ ‘NPO법인 자연왕국 호소노마을’ 개요

- 2004년 ‘자연왕국 호소노마을’ 조직을 NPO법인화한 것이다
- 설립목적은 자연 · 농업 · 농촌 생활을 통하여 도농교류, 복지증진, 농지보전, 환경보전 등을 실천사업을 행하고, 중산간지역에서 규범적인 마을활성화를 추진하고, 상품 · 인재 ·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매력있는 사업개발과 마을운동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
- 주요활동
 - 농촌체험교류
 - 식문화 계승, 전통기술 보전, 체험보급
 - 자연보호, 생태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 환경보전
 - 六夜山莊 관리운영
 - 어머니집 관리운영
 - 목공소 관리운영
 - 기타 상기사업의 부대사업 등

4. 쌀 수확후 동계 농지보전

- 이 지역은 겨울철에 눈이 많다. 지형적으로 천수답이 많은 것도 요인으로 논 관리에 노력을 많이 쏟는 편이다. 벼베기를 한 직후, 논은 바로 쓰레질을 하고 담수를 하여 겨울을 넘긴다. 이것은 겨울철 폭설에 의해 논두렁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듬해 초봄 물 부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5. 일본의 중산간지역 농업구조개혁 : 또 하나의 농업³⁾

□ 시장주의 농정개혁과 중산간지역 농업

- 농업소득 감소, 농업취업인구 감소, 고령화 진전, 유휴농지 증가 등이 일본 농업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이 속에서 중산간지역 농업은 물·잡초·산돼지 등 3점으로 상징된다. 지역 또는 면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경영체는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지규모화와 농지관리의 갭이 확대된다.
- 대부분의 농가는 영세자급적인 농가, 고령 연금의존형 가구이며, 수도작도 채산성 밖이다.

□ 농정개혁의 가속화

- 그동안 농정개혁은 시장대응형으로 추진되었다. 생산조정, 소득정책, 구조정책 등의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나 문제해결에는 기여하지 못하였다.
- 주요 정책은
 - 2000년, 조건부 주식회사 농업진입 허용, 중산간 직불제 실시
 - 2002년, 특구에 한정된 주식회사 농업경영 허용
 - 2004년, 쌀 정책 개혁
 - 2007년, 품목횡단 직불제, 농지·물·환경보전 직불제 실시
 - 2008년, 농상공연대 촉진법 제정
 - 2009년, 농지법 개정, 생산조정 수정, 일본·미국 FTA 소동 등
- 다양한 경영주체 육성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가속화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간지역에서는 성과가 없었다.
 - 농업생산법인제도 완화

3) 토야마대학(富山大學) 사카이 토미오(酒井 富夫) 교수의 기조강연 “중산간지역 농업구조개혁 : 또 하나의 농업을 생각한다”를 요약한 것임.

- 농업생산법인 이외의 법인의 임차권 취득 자유화
- 마을영농이 하나의 대안이었다. 생산비 절감, 마을 활성화, 마을의 다양한 인재를 활용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마을영농도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제동이 걸렸다.
 - 쌀값 하락 속에서 파이 축소, 조직의 구심력 저하
 - 생산력을 담보하는 능력이 있는 차세대 지도자 확보 곤란

□ 극복의 방향

- 자연체와 경영체
 - 공익 추구
- 다양한 경영체와 지역농업시스템
 - 농지관리조합, NPO 법인, 마을내 기업적 경영으로 집중, 마을영농, 법인간의 광역네트워크 등

□ 또 하나의 농업

- 자연체로서의 마을영농
- 지산지소 확산
 - 농산물 직판장, 학교급식
 - 미국의 CSA
 - 프랑스의 AMAP
- 로컬푸드시스템 활용
 - 6차산업화
 - 농업진입
 - 농상공연대

6. 수집자료

- 上越市農林水産部, “集落間連携・都市との協働による村づくりのイメージ”, 2009. 10
- 上越市農林水産部, “中山間地域直接支払い金次期対策を活動した農地保全活動の手順”, 2009. 2
- 上越市農林水産部, “2008年農地・水・環境保全対策総括表(実績)”, 2009. 10
- 上越市担い手育成総合支援協議会, “中山間地域の農業振興に向けて”, 2008. 12
- 農林水産省, “2010年農林水産予算概算要求の概要”, 2009. 10
- 農林水産省, “農地・水・環境保全対策の取り組み状況”, 2008. 12
- 農林水産省, “農地・水・環境保全対策のあらまし”, 2009
- 農林水産省, “農地・水・環境保全対策の取り組み方”, 2009
- 丸山 新, “自然王国はその村の取り組み”, 2009. 10
- 丸山 新, “自然王国はその村のあゆみ”, 2009. 10

丸山 新, “NPO法人自然王国はその村の概要”, 2009. 10
長嶋 正博, 「本気で農業をやりなさい」, オークラ出版, 2009. 10
嶋崎 秀樹, 「儲かる農業」, 竹書房, 2009. 7
斎藤 真嗣, 「体温を上げると健康になる」, サンマーク出版, 2009. 10
メディアアルタ, 「エクセル超簡単」, 三笠書房, 2009. 4
「東洋経済」, 東洋経済新報社, 2009. 10. 17
「文芸春秋」, 文芸春秋社, 2009. 11

(이상)